

教會의 本質的 成長

李 根 三

(본 연구소 소장 · 고신대 교수)

차 례

-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1. 그리스도의 몸 | 4. 하나님의 양떼 |
| 2. 하나님의 집 | 5. 하나님의 밭이요 동
산 |
| 3. 그리스도의 심부 | 6. 하나님의 권속, 나라 |

오늘 우리들의 教會는 成長하고 있습니다. 또 成長해야만 합니다.
그래서 教會成長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져가고 있는데 어떠한 成長
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.

성경에 사용된 教會의 호칭들을 보면 교회의 本質이 어떤 것인가를
말해 주고 있습니다. 그와 같은 교회의 本質을 생각해 보면 교회가 어
떠한 成長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
本質的 成長을 간단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.

1. 그리스도의 몸(The Body of Christ)

성경에 특히 사도 바울은 ‘그리스도의 몸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곧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고 그리스도는 이 몸 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바울 서신 中에 애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이 말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. (엡 1:22,23; 4:15,16; 5:23; 골 1:18,24; 2:19; 롬 12:5; 고전 12:12-31)

그러면 이 ‘그리스도의 몸’이라고 하는 말은 教會 成長에 관하여 어떤 암시를 주는가?

첫째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주권자요, 교회의 제일가는 자리를 차지하실 때 그 교회는 참된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.

“그는 몸인 教會의 머리라 그가 根本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”(골 1:18)

오늘날 成長하는 教會는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드리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 만일 教會가 이렇게 주님의 교훈과 명령에 全的으로 따르기만 하면 質的, 量的 成長은 分明하고 또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.

初代 고린도 교회가 原理를 떠나서 어떤 사람들을 따르게 되었으므로 人間의 領導權 問題로 肢體들이 分裂을 가져오고 聯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.

온 교회가 그리스도가 主 되심을 인식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성령 보혜사의 內的 臨在를 믿고 날마다 依支하는 경험을 한다면 교회의 分裂이나 갈등은 없을 것입니다.

주님과 교통하는 첫째 길은 기도를 통해서이고, 둘째는 啓示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. 이 두 가지는 教會 成長에 있어서 가장 필요할 뿐 아니라 또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.

둘째로 教會의 成長은 各 肢體가 연합하여 作用할 때에 일어납니다. 어떤 肢體이든 머리가 目的하는 바를 成功的으로 성취하려고 하면 各 肢體가 聯合되고 서로 순종해야 합니다. 모든 肢體는 같은 하나님의 머리 아래 있고 한 몸의 肢體입니다. 이런 몸의 肢體들은 서로 反對되지 않고 또 나누어지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目的을 향하여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各者의 받은 성령의 은사는 無秩序한 作用으로 分派를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.(고전 12:25; 14:33)

2. 하나님의 집(The Building of God)

“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”(고전 3:16)

“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”(고후 5:1)

바울은 이렇게 教會를 ‘하나님의 성전’ ‘하나님께서 지으신 집’이라고 하였습니다. 이와같이 하나님의 집이라 할 때 成長의 뜻은 어떠한 것입니까?

첫째로 教會 成長은 그리스도께서 그 집에 居하실 때 일어납니다. 教會의 目的是 成長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臨在하심이 나타남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. 바울은 신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殿임을 깨닫고 삼가 조심하라고 권합니다.(고전 3:17; 6:19,20)

둘째로 教會의 成長은 건축가들이 바로 지을 때 있는 것입니다. 바울은 고린도 教會에 “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”(고전 3:10)라고 하였는데 이 터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므로 그리스도께서 教會의 唯一한 기초가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. 교회는 어떤 사람이나 信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 계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. 또 세우는 자는 여러 사람이 필요하며(고전 3:10-15), 잘 훈련된 건축가들이 잘 짓고 잘 들보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.

세째로 좋은材料가 使用되어야 합니다. 터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는 기초가 놓여져야 하는데 그는 그리스도뿐입니다(고전 3:11). 그 다음에는 벽돌이 놓입니다. 여기에도 그리스도는 모퉁이 머리돌이 되십니다(행 4:11; 히 12:2). 그 머리돌 위에 쌓여지는 재료가 좋은 것이라면 그 집은 튼튼하게 잘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.

3. 그리스도의 신부

“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”(계 21:9)

“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”(고후 11:2)

엡 5:23-32 참조.

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가르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계에서 成長의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할 때에 成長할 수 있습니다.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깊이 인식함으로 신부로서의 成長이 있듯이 教會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信仰이 자라고 成熟

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.

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(요일 4:8,9).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 만한가를 잘 모릅니다. 그러나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던 바울은 “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꾀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…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낙히 이기느니라…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”(롬 8:35-39)고 하였습니다.

둘째로 成長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응답할 때 되는 것입니다.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고 순종할 때에 교회는 成長하는 것입니다.

4. 하나님의 양떼

“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…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”(행 20:28)

“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…”(벧전 5:2)

요 10장 참조.

教會는 하나님의 羊무리이며 羊떼들입니다. 이 교회가 成長하는 데는 첫째로 선한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모셔야 합니다. 목자 되는 교회의 교역자들과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선 베드로가 “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” 함께 같이 참된 인격적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.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일찌기 말씀하시기를 “네가 돌아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”고 하신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.

둘째로 목자들이 올바로 양을 위하여 준비하였을 때 교회는 양무리로서 자라갑니다. 羊무리는 양식과 보호와 인도가 필요합니다. 교회는 영적 양식의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. 이것을 위해서 목자들은 풍성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. 목자가 목양의 일을 잘 할 때에 교회는 자랍니다. 생명의 양식,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잘 준비하여 잘 먹이면 하나님의 양무리는 자랍니다.

세째로 양떼가 목자를 따를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.

양이 자기 목자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 안심하고 따를 때에 그들은 자랍니다. 교회는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는 목자들을 말씀대로 잘 순종할 때에 위험들을 면하고 잘 자라갈 수 있습니다.(벧전 2:25; 사 53:6; 히 13:7)

5. 하나님의 밭이요 동산

요 4:35, 마 13:31,32, 고전 3:6-9, 요 15장 참조.

“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”(고전 3:9)

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였습니다. 여기에서 成長의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

첫째로 成長은 일군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동역할 때에 옵니다. 하나님의 일군 된 사역자들은 자기 맡은 일을 하나,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께서 때문에 (전 3:6)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와 함께 할 때에 참된 成長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.

둘째로 成長은 나무 가지가 나무 자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. 주님은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成長할 수

도 없고 과실을 맺을 수도 없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권면하십니다. 교회의 成長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.(요 15:4,7,10,12,16; 갈 5:22; 롬 1:27)

세째로 成長은 열매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잘라 주어야 열매맺는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“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...”(요 15:2)

교회에 內在하는 죄악, 악의 뿌리는 지적되어야 하고 悔改하여야 합니다. 그리고 고쳐져서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워져야 참된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. 많은 수차만을 바라고 교회에서 말씀대로의 참된 권징이 시행되지 않는 그 교회의 成長은 위험한 것입니다. 꺾고 깨끗하게 하고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(잠 3:11,12).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좋은, 많은 결실을 위함입니다.(히 12:10,11)

6. 하나님의 권속, 나라

벧전 2:5, 딤전 3:15, 앱 2:19, 요 1:12, 갈 4:6.

하나님의 권속이요, 하나님의 나라인 教會가 참으로 成長하려면, 첫째로 질서와 효과 있는 지도력이 있어야 합니다. 하나님의 집은 잘 다스려야 합니다(딤전 3:4,5,12). 하나님의 집의 권속들은 인종, 계급, 모든 경제 조건들을 초월해서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들을 잘 다스리고 건전한 성장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그 말씀은 중생자들에게는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. 이 말씀으로 인도하

는 지도력 앞에 교회는 참 질서를 유지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.

둘째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으로 영적 통일성을 경험했을 때 成長합니다.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입어야 합니다.

하나님의 뜻 백성들이 각기 자기 주장을 버리고 성령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으며 그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 되는 것은 교회의 참된 成長의 모습입니다.

오늘 교회들은 내부적으로 사분 오열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주 안에서 영적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.(갈 3:8; 고후 5:17; 베전 3:7; 딤 전 5:12)

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성장의 원리

오 병 세
(고신대 학장)

차례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. 예루살렘 전도 | 4. 소아시아 전도 |
| 2. 유다 · 갈릴리 · 사마리아 전도 | 5. 유럽 전도 |
| 3. 안디옥 전도 | 6. 로마 전도 |

프린스頓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였던 워필드 교수는 사도행전을 '세 센타를 중심하여 이루어진 것'이라고 했습니다. 여기서 세 센타는 사도행전 1:1~8:1까지에 나타나는 예루살렘, 8:2~12:25까지의 수리아 안디옥, 13장~28장까지에 나타나는 로마인 것입니다. 13장~

※ 본고는 본 연구소 주최 제2회 교회성장세미나(1982. 2)에서 행한 강연을 옮긴 것입니다.